

이통사처럼 유료방송도 결합 할인... 매달 30% '뚝'

KT스카이라이프 '선택약정 할인요금제' 설명회

TV 방송+인터넷 결합시 할인 약정 종료시 재약정 없이 연장 서비스 품질 중심 선순환 기대 "고객혜택 증진, 시장 주도 의미"



강국현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새 요금할인제를 발표하는 모습. /KT

“유료방송 시장 경쟁의 중심을 직접적인 요금할인으로 가게 할 것이다. 보다 기존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을 KT스카이라이프가 주도하려고 한다.”

KT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 가운데 최초로 이동통신 시장의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한 할인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강국현 사장은 특히 이 요금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고객혜택 증진과 시장주도 의지에 있

음을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30% 요금할인 홈결합'은 고객이 위성-안드로이드UHD 방송인 sky A(스카이에이)와 인터넷 결

합상품을 가입했을 때 10월 1일부터 고객에게 제공된다. 방송과 인터넷을 신규가입했을 때 회사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혜택인 사은품과 장기 요금할인 가운데 하나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KT 스카이라이프측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적극 부응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바일의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로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강 사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생기기 전 이동통신시장은 보조금이 시장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인터넷과 방송이 결합된 유료방송시장도 이전 이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누가 가입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전부 달랐다”면서 “여기 사용자 대부분은 단말기에서는 대부분 25%요금할인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료방송시장에도 이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할인은 skyA12.1(skyUHD Green A+)과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결합 가입 시 적용된다. skyA12.1(skyUHD Green A+)에 스카이라이프(100M)을 결합하면 월 1만9800원이며 스카이가 200(200M)을 결합하면 월2만2000원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과 달리 약정종료 이후에도 별도 재약정 없이도 요금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약정 종료 후에도 해지 의사가 없다면 계속 할인이 지속되기에 서비스 이용기간 및 위약금에서 자유롭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 제도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제도로 도입하게 되면서 이용자간 고품 차별분제가 제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다경품 출혈경쟁을 서비스 품질중심의 경쟁으로 선 순환할 수 있어 우수한 마케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행사 자리에서는 화질을 높이는 고효율 압축기술 HEVC를 적용한 슈퍼HD(초고화질 HD)채널 제공 시범도 펼쳐졌다. 현재 1080i 방식의 슈퍼HD 채널 20개를 다양한 인기 장르 채널에 적용해 UHD 고객에게 제공하는 중이며 연내 1개 채널을 추가해 화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1080P 방식 채널(풀HD)은 방송신호 송출 단계에서 원본 화질 자체를 개선하여 전송하며 라이브 생중계 방송에 최적화된 영상이다. 10월 1일자로 J골프 채널에 적용하며 11월 SBS골프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국현 사장은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위성 플랫폼 본연의 품질을 향상시켜 1등 UHD 플랫폼으로서 유료방송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카카오게임즈, 코스닥상장 계획 철회

kakaogames

재정비 후 2019년 기업공개 재추진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상장을 취소하고, 2019년 목표로 기업공개를 재추진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진행해 온 기업공개 절차를 중단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속 성장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방향의 우선순위를 판단했다. 올해 목표한 경영 전략상 핵심 사안과 게임 개발과 지식재산권(IP) 기업의 인수 합병(M&A) 등 과제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사안 중 하나였던 기업공개는 전월 재정비를 마친 후

2019년 재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장 중단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절차는 마무리한다. 내년 기업공개 시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고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이사는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기업공개 철회는 면밀한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카카오게임즈는 플랫폼, 퍼블리싱, 개발 등 게임사업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강화해 향후 기업공개 시 그 가치를 더욱 인정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후 우량기업에 주어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받아 6월말 상장 예비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다. /김나인 기자

‘군 전역 간부’ 영업인재로 ‘무제한’ 채용

LGU+ 모집인원 제한 없이 특채

LG유플러스가 전역 후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 기회를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군전역간부 대상 영업전문인재 특별채용 모집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하사 이상으로 전역하는 군간부만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영업전문인재는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의 FM(Floor Manager)로 근무하게 된다. FM은 통신 서비스의 컨설팅 및 판매,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채용의 전형 절차는 9월 30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10월 동안 ▲온라인 AI면접 ▲1Day 면접 ▲임원 면접 ▲채용 검진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LG유플러스 채용 사이트의 ‘2018년 군전역간부(하사이상) 대상 영업전문인재 특별채용’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전형의 모집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수한 군전역간부 인재에 대해 전원 채용할 방침이다. 군전역간부로 입사한 영업전문인재는 일반 전



‘2018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진행된 LG유플러스 영업전문인재 채용설명회 전경. /LG유플러스

형과 달리 입사 후 1년 평가 ‘B’등급 이상이면 정규직 조기전환의 기회를 받는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입사한 영업전문인재들이 FM에서 나아가 직영점장 및 영업채널관리자, 지원팀장을 거쳐 영업담당(임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개인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대리점 창업관련 비용을 지원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의해 채용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채용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군전역간부를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美·中 무역분쟁 유탄 맞은 석유화학업계

실적 소폭 감소... 3분기가 고비 “4분기 중국발 수요 개선 전망”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대중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분기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IB업계에서는 3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고 4분기께나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출 물량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를 기록했으나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

7월 수출량은 313만133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9% 늘었지만 이 중 중국 수출 물량은 140만1514톤으로 지난해 7월 151만7693톤보다 7.7% 줄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0.4%에서 올해 44.8%로 감소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 때문이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수요 부진에 IB업계에서도 3분기 실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이음주·한상원 연구원은 국내 석유화학 5사(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케미칼·금호석유화학·대한유화)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을 1조6000원으로 전망, 전분기 대비 16.3%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8월 후반 이후 본격적인 시황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료가 상승 국면에서 주요 제품 판가 하락으로 스프레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다.

가장 악재로 꼽히는 건 중국시장의 수요 부진이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

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분쟁, 위안화 약세 등이 중국 제조업체들의 원료 확보 의지를 꺾고 있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국 천연가스 기반 화학 설비(ECC)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급이 늘어난 점, 국내 정유사들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급증해 장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점 등도 석유화학업계의 악재로 꼽힌다.

하지만 4분기 이후에는 시황이 다시 개선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이음주·한상원 연구원은 “10~11월 중국발 수요 개선이 기대된다”며 “중국 국경절 연휴, 광공제 등을 계기로 중국 소비 증가가 화학 시황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중간 선거 이후 미·중 무역 갈등 우려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화학 제품 수요 부진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위안화 약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GU+ “전국 편의점서 알뜰폰 유심 구매하세요”

GS25 3500곳에 전용매대 설치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GS25 편의점에서 알뜰폰 고객 유치 강화 차원에서 유심 서비스 전용매대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알뜰폰 고객 서비스(CS) 업무 지원, 통신사 최초 알뜰폰 멤버십 출시에 이어 편의점 유심 상품 접근성 강화로 알뜰폰(MVNO) 사업자들과 상생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GS25에서 제공 중인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국 3500여 개 매장에 유심 전용매대를 설치하고, 미디어로그-에넥스텔레콤-유니컴즈의 요금제 판매를 지원한다. 연내에는 1만 3000여 개의 GS25 전 매장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약정이나 위약금이 없고 쓰던 번호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모데들이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유심 서비스 전용매대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알뜰폰 유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편의점 전용매대 입점을 맞아 알뜰폰 3개사는 신규 요금제를 포함한 10종의 선·후불 서비스를 선보인다. 데이터 제공량 300MB부터 15GB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다.

우선 유니컴즈는 알뜰폰 브랜드 ‘Mob

ing’을 통해 3종의 선불 요금제를 내놓는다. 선불 요금제는 통신 서비스를 마음껏 사용해도 초과 과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료 2만5000원짜리 상품은 데이터 300MB(소진 시 3Mbps 속도제한)와 음성·문자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기본료가 5만원인 요금제는 데이터 11GB(소진 시 3Mbps 속도제한)에 음성·문자를 기본으로 쓸 수 있다. 기본료 1만원에 음성·문자·데이터를 종량 차감형으로 쓰는 선불요금제도 선보인다.

에넥스텔레콤이 운영하는 ‘A모바일’에서는 ‘LTE 99’ 요금제가 눈에 띈다. 기본료 9900원으로 데이터 2GB, 음성 100분, 문자 50건을 쓸 수 있다. 그밖에 7700원에 데이터 1GB, 음성 50분, 문자 50건을 제공하는 ‘LTE 77’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